

제6대 교정본부장
김학성 동문 | 8면 인터뷰

26년간 공직 생활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김학성 동문(법학 85)을
만나 봤다.



청각장애학생 고려한 어학성적 기준안 마련 필요 | 6면 기획

개선 필요한 몇 가지 제도 있어 … 소통과 정보 접근성 고취 필요성도 제기돼

제 1692 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대학주보



호관대서 세미나 개최

지난달 <호텔관광대학 미래를 말하다: 문화엔터테인먼트분야의 비전과 전망>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영역이 호관대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비전과 전망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양캠퍼스 총투표 22~28일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2023학년도 양 캠퍼스(양캠) 학생 총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양캠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특별대표기구 회장단, 각 전공·학과별 학생회장단에 대한 선출이 이뤄진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을 가진다.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명단 공고가 끝나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투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율 50% 미달 시 다음달 2일까지 투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국제캠퍼스는 오는 10일까지 선거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진다. 투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다. 서울캠과 마찬가지로 투표율 50% 미달 시 투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총선거는 지난해과 동일하게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인포21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다. 현장 투표소는 양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총선거를 앞둔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캠 총학생회장단 후보) 양측 선거 운동단의 규모도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된다”며 “대면 학기로 전환 이후 첫 선거인 만큼 역대 가장 뜨거운 선거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거에서 선출되는 양캠 학생대표단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반도체 융합전공, 양 캠퍼스 참여로 가닥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장비슬 기자 eva6155@khu.ac.kr

반도체 융합전공 개편 논의가 지난해 9월 우리학교는 서울캠 이과대학 소속 학과인 물리학과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의 요청으로 반도체 융합전공을 개설했으나 아직까지 학생을 모집한 바 없다. 분야 특성상 국제캠의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관련 학과를 포함해 해당 전공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도체 융합전공이 서울캠에 신설됐다고 알려져 국제캠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학이 반도체 융합전공을 양 캠퍼스(양캠)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편 중이라고 알려온에도 국제캠 학생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반도체 융합전공이 서울캠에서 시작됐다는 자체가 국제캠에 대한 인식 관련 문제로 귀결돼 ‘이원화 캠퍼스 정책’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양캠 학과가 순수학문 중심의 서울캠과 응용학문 중심의 국제캠으로 구분돼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반도체’와 같은 응용학문이 주로 국제캠 학과들이 주도해왔기에, 반도체 융합전공 주관 역시 국제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본부에 ▲반도체 융합전공 개설 관련 논의 경과 및 협의 사항 공유 ▲반도체 융합전공 개설 관

련 향후 계획 ▲학생대표자의 참석 보장을 요구했다. 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융합전공 자체의 개설 취지 및 개요를 알 수 있는 ‘융합전공 설명회’를 요청해 진행했다.

국제캠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학생회장은 “현재 반도체 융합전공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며 “전정대와 전자공학과 측도 양캠이 함께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은 모았지만, 주도만큼은 국제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도 향후 융합전공 진행에 있어 이번과 같이 소통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으나, 학생회 차원에서 계속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원화 인식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이공계열 학과와 함께 우리가 가진 무기를 잘 사용해 국제캠만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은 “국제캠에 순수계열 학과가 있고, 서울캠에도 응용계열 학과가 있는 것처럼 순수-응용이라는 기준은 일부 학과를 표현했던 기준일 뿐 캠퍼스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융합전공의 개설은 서울캠에서 시작됐으나 국제캠이 반도체를 주로 다뤄왔다는 것을 대학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제캠 학과들도 반도체 융합전공에 참여해 양캠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함께할 것이다”고 전했다.

최근 반도체 융합전공의 개편 상황은 국제학부무총장 주관으로 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전정대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이과대학이 참여해 양캠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학과와 전공과목을 정할 예정이다.